

“제이홉, 강력하고 멈출 수 없는 존재로 돌아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첫 번째 솔로 주자인 제이홉의 솔로 데뷔 음반 '잭 인 더 박스' (Jack In The Box)가 각종 매체들의 호평을 받았다.



박스'를 통해 진지한 래퍼로서 자신의 근간으로 돌아왔다."면서 "잭 인 더 박스'는 실험적이고 당당한 초기 방탄소년단의 음악처럼 느껴진다. 자기 정체성으로의 회귀가 이번 앨범의 포인트"라고 전했다.

21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영국의 음악 전문 매체 NME는 "제이홉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고 멈출 수 없는 존재로 돌아왔다."며 음반 평가에서 5점 만점을 매겼다.

미국 음악 매체 컨시퀀스 오브 사운드(Consequence of Sound)는 "제이홉은 솔로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면을 보여줬고, 그 어느 때보다 빛났다. '잭 인 더 박스'는 특히 앨범의 구조와 구성에 신경 쓴 것이 명백히 보인다. 피날레를 장식하는 '방화(Arson)'는 진정한 화력을 보여주는 곡"이라고 극찬했다.

미국 유명 음악지 롤링스톤은 "잭 인 더 박스는 간결하지만 강력한 음반으로 제이홉의 음악적 호기심과 마이크 앞에서의 능수능란함을 통해 그의 내면을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15일 발매된 '잭 인 더 박스'는 49개국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제이홉은 '잭 인 더

사진=빅히트뮤직

에이티즈 11월 미국 공연



그룹 에이티즈(ATEEZ)가 올 하반기 월드투어 일정에 나선다.

18일 에이티즈는 공식 SNS를 통해 새 월드투어 '더 펠로우십 : 브레이크 더 월(BREAK THE WALL)' 개최 소식을 알렸다.

에이티즈는 10월 29~30일 서울을 시작으로 11월 미국 애너하임, 피닉스, 댈러스, 포트워스, 시카고, 애틀랜타, 뉴어크를 거쳐 12월에는 캐나다 토론토와 일본 치바를 방문한다. 이 가운데 서울과 미국 애너하임, 뉴어크, 일본 치바는 도시별로 2회차씩 구성돼 더 많은 팬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오는 29일 발매를 앞둔 새 앨범 '더 월드 에피소드1 : 무브먼트(MOVEMENT)'에 맞춰 무대가 꾸며질 전망이다.

앞서 에이티즈는 지난 1월부터 월드투어 '더 펠로우십 : 비기닝 오브 디 엔드(BEGINNING OF THE END)'를 통해 서울, 미국, 유럽에 이어 일본까지 순회하며 약 18만 명의 관객을 운집시켰다.

공연 관계자는 "앞선 월드투어로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전 세계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새로운 월드투어를 기획하게 됐다. 특히 지난번에는 방문하지 못했던 도시들을 추가해 더욱 많은 팬들께 인사드릴 예정이다."고 전했다.

사진=KQ엔터테인먼트

CNN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또 한 번 한국 드라마 돌풍 일으켜"

한국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가 '오징어 게임'에 이어 넷플릭스에서 또 한 번 한국 드라마 돌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CNN비즈니스가 20일 보도했다.



이 드라마가 현재 31개 언어로 더빙됐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우영우'는 지난 4일~17일 2주 동안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비영어 TV드라마였다. 8개국에서는 1위를 찍었고, 22개국에서는 톱10에 포함됐다.

넷플릭스는 최근 수년간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힘을 쏟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넷플릭스 가입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태대지역 성장세가 이를 상쇄하는 흐름이다.

CNN비즈니스는 '우영우' 제작사인 '에이스토리'가 또 다른 넷플릭스 화제작인 '킹덤'을 제작한 곳으로 주가가 6월 말 '우영우' 공개 이후 74% 폭등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넷플릭스는 19일 공개한 2분기 실적에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신규가입자가 110만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기간 전세계적으로는 97만명이 감소했다.

이 매체는 또 우영우의 성공은 에이스토리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외국 제작 콘텐츠 비중을 높이고, 해외 시장 성장 의존도를 높이는 넷플릭스의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넷플릭스는 이날 블로그에 '우영우' 성공담을 싣고,

사진=ENA

부동산에 관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오렌지 카운티 전지역!

주택 / 아파트 / 상가 / 사업체 전문

- REALTOR 데이빗 전

T.714.309.2355

★ 갈갈 포토

확진자!!!